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9/07~09/13

1.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해운 물류 차질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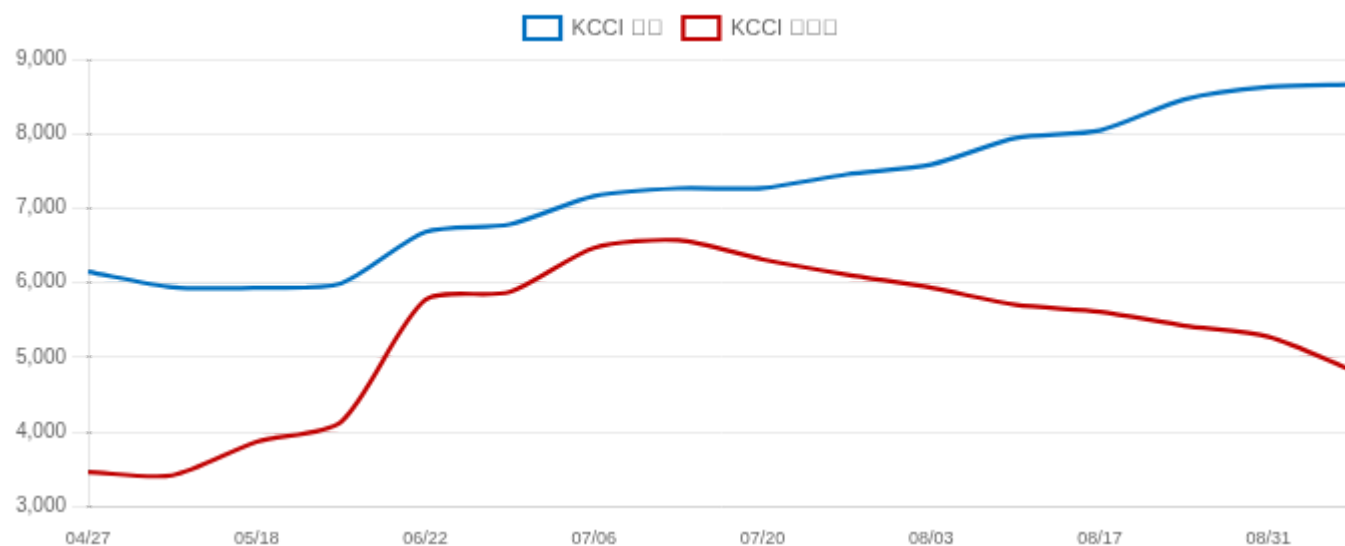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동 권역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해상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며 역내 물류·안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주였음. 이란의 해상 제한 구역 신설과 통항 선박에 대한 제재 경고는 주요 선사들의 실시간 회항 결정을 초래하며, 중동발 정기선 서비스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킴.

이러한 해협 봉쇄 위협은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해운 시장 전반에 파급될 위험을 내포함.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통항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및 운임 지수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해운사들의 대체 항로 모색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등	8,659 \$/FEU	09/07	+0.4%	+9.0%
KCCI 지중해	4,819 \$/FEU	09/07	-8.6%	-15.5%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07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해운 물류 차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단과 이란의 해상 제한 구역 신설로 중동발 해운 물류 불확실성이 급증함. 선사들의 실시간 회항 결정과 통항 선박 대상 제재 경고는 역내 정기선 서비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에서 해상 통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함. CMA CGM과 MSC 소속 컨테이너선 9척이 해협 이탈을 시도했으나 4척이 회항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일부를 잇는 해상 제한 구역을 선포함. 이란 당국이 해협 재개방을 발표한 지 24시간도 안 되어 통행을 다시 차단하면서 운항 계획의 급변이 발생함.

이 같은 통제 강화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제한 구역 설치 언급과 궤를 같이 함. 혁명수비대는 이란과 조율 없이 제한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으며, 이는 그간 간헐적이던 군사적 긴장이 해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전환된 양상임. 선사들은 해협 통항 위험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회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

이번 사태는 중동발 원유·LNG는 물론 컨테이너 물동량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시킴. 통항 차단이 반복될 경우 아시아-유럽 노선의 운임 변동성과 선박 스케줄 지연 가능성이 커지며, 역내 정기선 서비스의 기항 신뢰도가 저하됨. 또한 통행 제한 구역 내 선박 보험료 상승과 우회 수요 증가가 예상됨.

특히 1만TEU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포함된 선단 일부가 회항한 것은 페르시아만 진출입 경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신호임. 선박 규모별로 통과 여부가 갈린 것은 해협 통제의 기준이 모호하고 선사별 대응 전략이 상이함을 보여줌.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호르무즈 우회를 염두에 둔 비상 운항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CMA CGM·MSC 소속 9척 중 4척이 호르무즈 해협 이탈 시도 중 회항함. 나머지 8척만 통과에 성공함.
-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만~아라비아해 일부에 해상 제한 구역을 선포하고, 조율 없이 통과하는 선박에 제재 경고함.
- 해당 해역은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핵심 길목으로, 통제 현실화 시 우회 수요와 운임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 통행 제한이 실제 시행될 경우 해당 구역 통과 선박의 보험료 상승과 운항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 1만TEU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포함된 선단의 회항은 역내 정기선 서비스 기항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됨.

전망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제한은 이란의 군사적 의도와 맞물려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사들은 해협 우회와 비상 운항 계획을 병행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제한 구역의 정확한 범위와 단속 강도에 따라 중동발 해상 물류 흐름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중동발 수출입 화물의 운송 지연과 운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물류 계획 수립이 필요함.

포워더 — 호르무즈 통항 불확실성에 따라 대체 경로와 리드타임을 반영한 스케줄 조정이 요구됨.

항만·선사 — 페르시아만 기항 서비스의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우회 항로 및 보험료 인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